

# 해남·강진 이어 완도에 공공산후조리원

### 전남 세번째... 대성병원과 위·수탁 운영 협약 6월 개원 나주에 4호점 올해말 완공 예정... 2022년까지 5호점도

전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산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전남도는 9일 전남도청에서 완도 대성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완도 대성병원 내 2층에 새로 짓는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열악한 지역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을 경감해주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는 6월 개원할 예정이며 투입된 16억9300만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완도군, 대성병원 등이 나눠 부담했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용료의 64% 수준이다. 산모실(10개)·영아실·좌욕실·프로그래밍실·면회실·건강실 등을 갖췄다. 또 간호사 4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 11명이 근무하며 지역 출산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제공한다. 3호점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5년 9월 해남종합병원을 증축해 들어서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강진의료원 1층에 2호

점을 신축해 운영중이다. 멀리 도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니 1호점인 해남 산후조리원의 경우 10개 뿐인 산모실을 지난 3월까지 943명의 산모가 이용하는 등 지역민 반응도 좋다. 전남도는 올해 말 나주에 4호점을 내는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5개로 늘려 지역민들이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산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전남도는 산모실 10개, 당장,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세우는데 10억원(해남 9억6400만원·강진 17억36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산후조리원 1곳당 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호점과 2호점 모두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적

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유입이나 출생아 증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통계(확정)' 자료에 따르면 해남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7년 출생아 수는 640명에 불과, 전년도인 2016년(786명)에 비해 급감했다. 인구는 7만5121명(2016년)에서 7만3604명(2017년)→7만1901명(2018년) 등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강진도 지난해 2017년 출생아 수(222명)가 전년도(270명)보다 줄었다. 좋은 취지임에도 출산율 저하, 인구 유출에 재정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산단 환경대책 민관거버넌스 운영 대기오염 조사·주민 건강영향평가 등 자구책 촉구

전남도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을 계기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환경전담기구인 '(가칭)여수산단 환경지도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합동 조사와 함께 여수산단 주변 대기 질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8일 "지난 7일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수산단에 대한 시스템과 법령 및 제도를 개선,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는 여수산단지 주민 대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수참여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기업체 공장장, 전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역 도의원 과 시의원, 대기·건강관리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연순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이우범 전남대 교수, 박봉순 전남도 환경산업국장 등이 공동위원장에 뽑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확정하고, 거버넌스 기본 의제 및 자기측정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위반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여수산단 주변 대기 질테조사 ▲주민이나 사회단체 요청 시 환경오염 위반 배출시설 및 방치시설 공개 방안 ▲여수산단 주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등 4가지를 기본 의제로 선정하고, 추가 의제는 위원회 합의 하에 선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 유해성,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 조사체계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시민대표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는 환경부에 검사 협조를 의뢰한 상태로, 자동측정 시스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체별 자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1단장 3명 15명으로 환경전담기구인 '(가칭)여수산단 환경지도감시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2차 회의는 오는 21일 열린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남 13개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전국 최초 기획수사에 나서 측정값 축소 조작, 미측정 성적자 발행 등 235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 배출사업장과 4개 측정대행업체(전남 3·광주 1)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인구 늘리기 워크숍 귀농지원·발전방향 등 협의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 늘리기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도, 시·군의 인구, 청년,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남 현안 사업과 하반기 주요 사업은 물론 22개 시·군 시책사업 추진사항, 발전 방향 등을 토론하고, 인구감소 문제 대응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2019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희망찾기 시군 공모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사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2019년 하반기에 추진할 청년주도형 인구 유입·정착사업 민간 공모, 귀농·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시·군 공무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지혜를 모았다.

시·군 시책사업 가운데 목포시의 전일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여수시의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순천시의 청년활동 포인트제, 정년도전사업 등이 호응도가 높았다. 22개 시·군별 전일·결혼·출산장려금, 귀농귀촌지원 사업 등도 소개했다.

유현호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조금씩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이 나타나고 있다"며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는 하반기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취임 후 첫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찾은 김연철 장관 (왼쪽 두번째)이 8일 취임 후 첫 방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 김연철 북측 연락사무소 임시소장대리(맨 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주SRF 시험 가동 여부 결정되나

'환경영향조사' 수용 관건... 9일 결과 주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여부가 9일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SRF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9일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머리를 맞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반대위) 등 5개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검증위원회 등이 참여한 예정이다.

예초 7차 회의를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에 합의한 6차 회의 이후 세부 가동 일정과 최종 합의서 작성 등을 조율하려다 두

차례 연기된 만큼 이날 회의도 합의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버넌스는 6차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 조사를 위한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하고 60일간 분가동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난방공사측이 그동안 나주·목포·순천 권역에서 들어온 고히연료만으로는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열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시험 과정에서 광주권 고히연료 반입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종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5년 연속 기관표창

전남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9년 식품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226개) 평가에서는 광양시, 담양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받았다.

식품 안전관리 평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식품 안전관리 인프라,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시책 분야 등 11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한다.

전남도는 음식점,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 5만1500개소를 대상으로 위해 식품 회수, 업체 점검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종사자 교육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광주세계수업선수권대회, 세계한상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열려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회 관련 시설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수 전남도 식품안전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협업을 통해 이룩한 성과"라며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광주세계수업선수권대회, 세계한상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열려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회 관련 시설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수 전남도 식품안전담당관은 "이번 수상은 도와 시·군이 협업을 통해 이룩한 성과"라며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 교환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운리 해수욕장 1654㎡ 별장 등 적합한 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방·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완암동 아파트 지하 205㎡ 은행8천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전면 월산마을 4차선 4630㎡ 대형저수지 인근 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상가건물

- 함평 영산면 바다 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장성도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바로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물건

- 동구 충장로 5가 최고상업지 나대지 1707㎡ 건설적합 84억
- 광산구 송학동 땅 43278㎡ 사할있음. 남광당·복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레벨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에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한바이오펙셀생물건강 · 김씨

## 010-3598-7080